



# 자연 속에서 발견하는 '또다른 세계'

##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과 사상을 담은 책

1935년 위스콘신 강변 모래땅의 황폐한 농장을 장만해 가족과 함께 조용한 시골 생활을 시작했던 알도 레오폴드는 딸감용으로 참나무를 자르며 톱날이 각 나이트를 지날 때마다 참나무가 자라왔던 나뭇들을 되돌아본다. 1925년경에 만들어진 나이트는 그에게 위스콘신 주 최후의 담비가 죽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1908년 최후의 쿠거가, 1907년 마지막 스라스니가, 1899년 마지막 들비둘기가 사냥꾼의 총에 맞아 죽었다. 잔디밭의 불을 끄려다 죽은 레오폴드의 이같은 상상은 "벌목꾼의 목재와 시인의 나무는 구별된다"고 한 에머슨의 말을 떠올리게 한다. 자연은 우리가 마음을 여는 만큼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 자연을 통해 발견하는 대지 공동체

이즈음 자연과 더불어 살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들이 적잖이 출간됐다. 생명사상·생태주의·공동체·초월주의·환경운동·대안교육 등으로 주제를 나눌 수 있지만, 이들 책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지금 삶의 양식에 맞서 사람과 자연을 함께 살리는 길이다. "사람이 사람으로, 풍뎡이가 풍뎡이로 살 수 있는 건 전체의 생명체를 서로 이어주는 그물망 속에서란다"는 전라도 변산 윤구병씨의 말이 "생태계 전체의 통합성·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방향이라면 그것은 옳다"는 미국 위스콘신주 레오폴드의 말과 함께 울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1839년 출간된 '렐프 왈도 에머슨의 자연'(신문수 옮김, 문학과지성사)은 이 분야의 고전에 속한다. 에머슨이 자연을 바라본 입장은 자본주의가 일반화된 현대의 눈과는 많이 다르다. 자연 속에서 신성을 발견해 우주적 존재로 포섭되는 개인의 영혼을 부르짖는 그의 모습은 위스워드 같은 낭만주의자를 떠올리게 만든다. 하지만 이후 에머슨주의가 이상주의 농장 '브루크 팜'으로 현실화될 수 있었던 것은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체를 자연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00년 뒤, 미국 야생동물보호론자의 아버지 알도 레오폴드와 사회주의자이자 평화주의자인 스킵 니어링 역시 서로 방향은

다르지만 비슷한 자연을 발견한다.

《모래땅의 세계》(윤여창·이상원 옮김, 푸른숲)에서 레오폴드는 과학자의 눈과 시인의 손으로 시골생활의 이모저모를 그린다. 그는 스텝크의 발자국을 뒤쫓거나 참나무를 베어내고, 송어 낚시를 하거나 들평을 관찰한다. 레오폴드는 "한 그루의 늙은 굴참나무를 가진 사람은 역사도서관을, 그리고 '진화'라는 초대형 공원의 예약석을 가진 것"이라고 주장해 인간을 포함해 자연 속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됐다는 생태학적 인식론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의 윤리는 우리 호모 사피엔스라는 존재를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로부터 그 구성원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그의 사상은 미국 환경운동의 발원지가 된다.

아내 헬렌 니어링이 쓴 스킵 니어링과의 삶 이야기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이석태 옮김, 보리) 역시 1932년부터 시작된 버몬트에서의 시골생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니어링 부부의 자연은 절제를 통한 정치적 자유를 꿈꾼 대가로 얻어진다. 이들은 "당신의 수입 안에서 생활하라. 얻은 것보다 덜 쓰라, 쓴 만큼 지불하라"는 삶의 원칙을 준수하느라 시골 생활을 시작했다. 이 점에서 이들은 소로우와, 그리고 자연을 통해 자유로운 영혼을 발견한다는 점에서 에머슨과 닮았다. 자연은 결국 그들에게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절제를 통해 조화로운 삶을 발견하는 법을 가르친다.

### 생명의 원천으로서 농업

이들 미국 책이 영혼을 발견하는 도구나 인간이 공생해야 하는 우주로 자연을 본다면, 농경문화를 가졌던 우리는 '밭'이라는

상징을 생명을 주는 원천으로 본다. 대표적인 책이 공동체 운동으로 유기농법을 시도한 농부 원경선씨의 삶을 다룬 《생명을 풀무질하는 농부》(유재현 지음, 한길사)다. 평전과 에세이를 뒤섞어 자유롭게 써내려간 이 책에서 글쓴이는

76년부터 정농회를 결성, 무공해 농법을 실현시킨 원경선씨의 삶을 통해 생명을 앞세우는 농법을 소개한다. 원경선씨는 "인간의 생명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귀하디"며 이를 위해 "작게는 가족 단위, 크게는 공동체 단위의 소규모 영농법"을 제안한다.

'한살림공동체운동'을 태동시킨 장일순의 《나락 한알 속의 우주》(녹색평론사)와 그의 대학후배이자 대구에서 한살림운동을 벌이는 천규석의 《이 땅덩이와 밥상》(창작과비평사)·《땅사랑 당신사랑》(명경) 역시 원경선씨의 말에 동의한다. 《나락...》가 자연의 미세한 존재에도 우주 전체와 같은 생명이 깃들어 있다는 생명사상에서 출발한다면, 천규석씨의 책들은 농사짓는 처지에서 그 사상을 현실에 적용해 생명공동체 농법을 제안한다. 이는 "잡초 한포기, 나무 한가지, 벌레 한마리까지 뭉수룩 다치지 않고 다친 만큼 사람의 이성적인 노동으로 되갚아 생명의 질서를 회복해가는 삶의 과정"이다.

천규석씨의 이 말은 윤구병의 《잡초는 없다》(보리)에서 다시 들을 수 있다. 3년 동안 변산에서 농사 지으며 겪었던 일과 떠올렸던 생각을 담은 이 책에서 윤구병씨는 생명을 살리는 농업을 하기 위해 '만드는 문화'가 아닌 '기르는 문화'에 바탕한 공동체적 생활



양식을 제안한다. 이런 결론에 이르기 위해 그는 잡초인 줄 알고 뽑아버렸다가 나중에 그 풀들이 벌꽃나물과 광대나물이라는 것을 알았다든지, 새끼를 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닫는다든지 하는 일들을 겪는다. 이 책은 공동체적 생활양식을 가르칠 수 있는 대안교육에도 큰 관심을 갖는다.

이들 책과 비교하자면, 소설가인 정연희의 《언니의 방》(삶과꿈)은 일반인의 소박한 입장에서 시골생활의 즐거움을 그린 책이다. 언니가 사는 경기도 하갈리에서 같이 농사 지으며 겪은 일을 봄·여름·가을·겨울로 나눠 서술한 이 책의 중심은 "흙냄새와 땀방울 속에 녹아져 자연과 하나"가 되므로 "흙을 일구는 일이 하늘 뜻을 따르는 길"이라는 깨달음에 있다.

### 만드는 문화에서 기르는 문화로

열네살 소년 원경선은 이들 동안 멀건 밀기울 죽 반 사발만 먹은 채,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온종일 피약벌 아래서 호미질을 하다가 어머니와 눈이 마주친다. 그 눈은 "굶주린 제 새끼에게 아무것도 입에 넣어줄 수 없는 무능력한 어미의 참혹한 심정"을 담은 눈이다. 자연과 함께 하는 조화로운 삶을 위한 절제를 주장하는 외국 책과 생명 모두를 살리는 밥상공동체를 주장하는 우리 책의 차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온다. 언뜻 보기에 두 길은 굉장히 멀리 떨어진 듯하다. 하지만 이 길들은 생명 공동체에 바탕한 다른 세계라는 하나의 소실점을 향하고 있다.

— 김연수 기자

